

전 남

목포에 1000척 규모 마리나항 조성

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1100억 들여 내항 등 전진기지 개발

목포시가 현재 32척인 목포항 마리나항을 1000척 규모로 확대하는 등 마리나 전진기지로 집중 개발한다. 목포시는 22일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 이 같은 기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목포연안 전반에 걸친 기초 자료조사와 영국, 프랑스 등 국내외 마리나 개발유형별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개발 적지와 수요추정 등을 평가하고, 마리나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1100억 원을 들여 내항, 삼학도 지선, 평화광장 등 연안에 걸쳐 600~1000척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 등 국내외 마리나 개발유형별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개발 적지와 수요추정 등을 평가하고, 마리나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1100억 원을 들여 내항, 삼학도 지선, 평화광장 등 연안에 걸쳐 600~1000척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까지 마무리짓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9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목포 내항을 여객기능과 함께 요트 전진기지의 대표 거점항만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1단계로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삼학도에 70억원을 투입해 계류장, 주차장,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지장, 인양기 등을 갖

춘 50피트(ft)급 3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유체식 마리나 시설과 육상에 25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고 총 57척의 요트 정박공간을 확보했다. 목포항은 KTX,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돼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리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 등 관련 산업이 많다.

목포시 관계자는 "1000척 규모의 마리나 전용 시설이 건립되면 새로운 해양문화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지난 19~21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꽃계 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청정해역에서 잡은 꽃계를 구입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 꽃계 '대박났네'

서망항 '축제 한마당' 전국 4만5천여 관광객 찾아

특산물 판매액 6억대 ... 직·간접 경제효과 수십억

"청정해역에서 잘 잡은 싱싱하고 살이 통통 오른 자연산 꽃계에 반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도군 서망항에서 개최된 '제3회 진도 꽃계 축제 한마당'이 대박을 터뜨렸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목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4만 5천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

다. 또 축제 기간 동안 꽃계를 비롯해 음식, 특산물 등 판매액은 6억여 원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십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관광객들에게 자연산 꽃계로 만든 음식을 판매해 입맛을 돋우고 꽃계 깜짝 경매, 시식회 등의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제공해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군은 바가지 없는 축제에 위해 축제 전부터 상인들을 계도했으며, 행사장 내 주차장 확보와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해 축제장 이미지를 개선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어민과 진도군수협이 축제추진위를 구성하고 축제 기획·진행·운영까지 맡아 자체적으로 추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진도 꽃계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진도 꽃계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내년 축제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영광 찰보리가루로 만든 스프·수제비·파전 등 10여종

도시 소비자들 입맛 사로잡는다

국제 농업박람회 전시·시식 코너 관람객 인기 부스 등장

영광 찰보리가루를 이용해 만든 가정용 생활 요리가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1일 국제 농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도 농업기술원 영광 홍보관에서 보리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찰보리가루를 이용한 가정 생활 요리 전시와 찰보리 스프 시식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보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보리산학연 협력단에서 광주여대 김지현 교수팀에 의뢰한 '영광 찰보리 가루를 활용한

가정용 생활 요리 레시피 개발' 연구 결과에 따라 개발된 찰보리 스프 등 10여 종의 생활요리를 전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가진 최종 보고회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찰보리 스프'를 시식하고 찰보리 요리 레시피 리후렛과 홍보용 찰보리가루를 나눠줌으로써 보리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보인 찰보리 음식은 찰보리 스프를 비롯한 수제비, 찰보리 파전, 찰보리 전병, 찰보리 팔죽, 찰

보리떡, 찰보리 소바와 밀반찬인 가지무름, 콩무름, 고추무름, 다시마 부각 등이다.

국제 농업박람회를 찾은 많은 관람객들은 보리밥으로만 먹던 찰보리가 이렇게 많은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겨울철 농가의 주요 소득작목이었던 보리가 올해부터 국가 수매가 중단되고 소비자의 외면으로 소비가 점차 감소했지만, 영광군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보리 면적을 확대하여 2010년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찰보리 파전



찰보리 스프

한편 현재 영광군에는 찰보리 제분공장을 비롯해 찰보리떡, 찰보리떡, 보리 막걸리, 보리순차, 보리 식혜, 찰보리 된장, 찰보리 고추장, 찰보리 한우 등 특산품이 있으며 그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완도 교육발전 소통의장

완도교육지원청 마련 설명회 성황

도교육감·학부모 등 300여명 참석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장진숙)은 최근 완도여중 다목적 강당에서 장만채 도교육감, 김종식 군수, 박경남 군 번영회장, 각급 학교 교장,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사랑·행복이 가득한 완도 교육발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설명회는 학부모들과 열린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완도교육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완도교육청은 '꿈·사랑·행복이 가득한 완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수·학습역량 강화 등 9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완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배움과 돌봄, 복지가 공존하는 즐겁고 건강한 완도교육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바람을 실현할 계획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완도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고, 교사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직원 대상 보험 마케팅 교육

NH농협생명-NH농협손보

NH농협생명 광주총국(총국장 이근 범)과 NH농협손해보험광주총국(총국장 임 정 수)은 최근 광주관내 지역농협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보험 마케팅 주말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상품에 대한 현장마케팅, 보험과 세금·보험상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선 사무소 직원들이 소홀하기 쉬운 보험의 필요성과 내년부터 바뀌는 세금 관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실시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목포지역 청년단체가 목포대 의과대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목포지역 최대 청년 단체인 '목포 청년 100인 포럼'(이하 100인 포럼, 공동대표 강문정·박우영)은 최근 목포 웨딩 팰리스에서 열린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유치기원 서명부를 고석규 목포대 총장에게 전달하며 의과 유치를 기원했다. (사진)

100인 포럼은 행사 시작전 회원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목포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유치 기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100인 포럼은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고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 청년단체로서 매월 오전 7시에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목포지역 청년단체인 사단법인 건목회(회장 이혁제) 회원 및 가족 150여명도 서명운동에 동참해 목포대에 전달했다.

장복남 목포청년 100인포럼 사무처장은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lee@

직원횡령 사건

시민들에 사과

김종석 여수시장

김종석 여수시장이 최근 회계과 직원 김모(46·가능직 8급)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30만 여수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금횡령과 관련 대시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여수시 수장으로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크게 실추되고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달이 밝히겠다"며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은닉재산을 파악해 환수받을 수 있도록 압류조치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201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 2012.10.25(목)-10.28(일)

2012 Korean Traditional Liquor Grand Festival

얼썩! 우리 맛, 멋, 흥에 취하다!

❖ 전시·홍보행사

- '우리술 산업관' 거리, '특별한 우리술테마' 거리 (특별전시관), '우리술 아트' 거리 (우리술 취화선 산발대회), '북카페 콘서트' 거리
- '우리술 프리마켓' 거리 (2012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
- '전통주 맛자랑' 거리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 2012 대한민국 가양주 발굴대회) '전통 시주풍류' 거리 (북쪽의 시주풍류회)

❖ 이벤트 프로그램

- 1Day_25일 (첫맛을 느껴라!) - 개막식, 햅쌀막걸리 선포식, 7080 콘서트 (수와진 & 민해경)
- 2Day_26일 (도도한 흥에 취해라!) - 코리안락 라이브 대회, 울랄라세션 with 막걸리파티
- 3Day_27일 (참 맛을 즐겨라!) - 대학원단 및 밴드 공연, TOP밴드의 슈퍼카드, 글로벌 막걸리 UCC 시상식
- 4Day_28일 (Touch, 대한민국!) - K-pop커버댄스 & 비보이,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 시상식, 폐회식

※ 막걸리의 날,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 - 올해는 10월 25일이며, 막걸리의 날로부러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합니다.

※ 축제 포스터와 함께 함께 찍은 인증샷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시면 축제현장에서 '막걸리 한발'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술 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신문,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문의 : 02-6300-1699 / www.makgeolli.com